



창단 40년을 맞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올 상반기 중 외국인 지휘자를 포함한 다양한 객원지휘자를 초청, 연주회를 가진 뒤 상임지휘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단 위탁 예술품 구매 서두르세요

186점중 85점 사전판매...12일 빛고을문화관 경매

광주문화재단이 문화예술위탁품 경매에 출품된 186개 작품 중 85점이 사전 판매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매는 12일 오후 4시 빛고을시 민문화관에서 열린 예정으로 재단 창립 5주년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안중일 전 광주시교육감이 위탁한 학정 이돈홍 선생의 서예작품 '自勝嚴賢(자승최현)'은 이명자 S갤러리관장이 구매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이사가 위탁한 오승운 화백의 '수련'은 최상필씨의 품에 안겼다.

또 김성 국회의장 정척식서비서관이 위탁한 네티어, 박해자 국회의원의 스킵프,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의 장전 하남호 전서작품,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바둑세트 등도 판매됐다.

아직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도 많다. 황영성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의 '가족이야기', 우재길 화백의 '꽃밭',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0년 탄자니아에서 만난 코끼리 때를 직접 촬영한 '평화', 연극기획자 박명성 감독이 기탁한 증광스님의 '산과 달',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차관이 보내온 2002년 월드컵 32강 경기에서 사용된 축구공 등이다.

위탁작품 목록과 판매 여부는 광주문화재단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70-742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독립운동서 5·18까지...광주여성운동사

정인서·김다이씨 책 펴내

대부분의 역사서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돼 있으며 여성은 과거 전통문화와 통념 속에서 희생돼야 하는 존재로 인식됐다. 따라서 우리 역사에서 여성 운동에 대한 연구나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제 강점기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광주 지역 여성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지역 언론인 정인서, 김다이 씨가 펴낸 '광주여성운동사'(광주신문화원연합회)는 여성운동의 역사와 인물, 세계 상황을 들여다본다.

238쪽 분량인 책은 4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 '광주여성운동의 흔적'에서는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여성들이 활약한 기록들을 다룬다. 2부 '광주의 독립운동가들'에서는 소심당 조아라, 호남 최초의 여의사 헌덕신,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등을 조명한다. 3부 '여성 민주화운동의 리더들'은 1980년대 인권운동을, 4부 '미안마 여성운동과 현주소'는 미안마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소개한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18호 발간

여성·가족정책 이슈 정리

이제 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규정 도입률은 73% 정도이지만,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 도입률은 27%에 불과했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정혜숙)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18호를 발간했다.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여성·가족정책 관련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18호에는 '광주지역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황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역 15개 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양립 및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정책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실었다.

출산 및 양육지원 지표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 항목에서 도입률이 낮거나 이용실적

LA·도쿄·광저우·몽골 4개 단체 해외투어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2016년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2016년은 어떨까. 올해 예술단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활발한 해외 공연이다. 지금까지 매년 한 개 단체 정도가 외국 공연을 진행했던 데 반해 올해는 광주시향 등 4개 단체가 해외 투어를 준비중이다. 또 시립단체들의 주 공연장인 광주 문예회관 뿐 아니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 창단 40년을 맞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행보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지난해 말 이현세 상임지휘자가 임기 만료와 함께 시향을 떠나면서 차기 지휘자로 누가 시향을 이끌게 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1월과 2월은 김영연 부지휘자 체제로 공연을 진행한다. 15일 열리는 신년음악회에서는 테너 윤병길과 소프라노 이승희가 무대에 오른다.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김효근의 '눈'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빛가람 신년음악회(1월 19일)를 무료로 진행한다.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공연이 열리며 플루티스트 최나경씨가 사라사테의 '찌코이네르 바이젠'을 협연한다. 시향의 고정 레퍼토리가 된 그림자극은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무대에 올린다. 그림자극 전문 극단 '영'이 함께 한다. 시향은 상반기 중 도쿄 공연도 진행한다.

관심을 모으는 차기 지휘자 선임은 7월 정도까지 다양한 객원지휘자를 초청, 연주회를 진행한 후 전문가, 단원, 관객 평가 등을 거쳐 적임자를 뽑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모 형식을 띠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지휘자를 선임할 방침이며 시향 단원과 문예회관 측이 각각 3명씩, 6명의 후보자를 선정, 객원지휘를 맡리게 된다. 현재 단원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지휘자를 포함해 후보자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관측에서도 자체적으로 평론가, 음악학과 교수 등을 통해 객원 지휘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임한규 상임지휘자가 2년간 다시 맡게 된 시립합창단

시향, 15일 신년음악회·도쿄 공연

외국인 포함 객원 지휘자 6명 관심

국악관현악단, 대구와 합동공연

극단, 광주 이야기 '충장로 1930'

아시아문화전당 공연도 추진

신춘음악회(3월 10일)로 하이든의 '벨스미사'와 유명 합창곡을 준비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4월21일)도 준비중이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베르디의 '레퀴엠'을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며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연주회도 마련한다.

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김광복)의 올 첫 무대는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다. 3월 31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펼치며 5월 12일에는 대구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몽골 공연을 추

진중이다.

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윤영문)은 3월 26일 '봄'과 관련한 노래를 모아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눈에 띄는 행보는 미국 공연이다. 상반기 중 미국 LA 영 '영연젤스합창단'과 교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헨델의 '메시아'를 광주시향과 합동공연 무대에 올리기 위해 지금부터 연습중이다.

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은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김관선 안무의 모던 발레 작품 '불안한 축'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작품의 특성상 컨템포러리 아트를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컨셉이 맞아 예술극장 공연을 추진중이다.

상반기 신작으로는 한국적 색채를 가미한 창작 발레를 준비중이다.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 자매 결연 20년을 기념해 양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이며 국립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가로 활동한 이정은씨가 함께 작품을 만든다. 하반기에는 '돈키호테'와 '지젤' 등을 선보인다.

'광주 100년사' 시리즈를 통해 정윤성, 최홍중 등 광주의 인물을 조명했던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운모)은 세번째 작품으로 '충장로 1930'(가제)를 준비중이다. 지금까지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던 데 반해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는 광주의 '스토리'를 작품화하는 게 특징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인기 작품 '해무'의 작가 김민정 씨가 희곡을 쓰고 있다.

시립극단의 브랜드 공연이 된 '전우치' 공연도 올해 어김없이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는 지금까지 공연 장소였던 금남공원에서 벗어나 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공연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단원과 예술감독의 고소 사건까지 벌어지며 심각한 내용을 겪었던 국립극단은 아직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잠복돼 있는 상태지만 단체 살림을 책임질 단무장을 시립국악관현악단 단무장과 교체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수연 명창 등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가'를 연출했던 국립장극단 상임연출가 정갑근씨 연출로 이순신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를 올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도 무대에 오를 시립극단 '전우치' 공연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박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